

청춘들의 힘찬 도전...여수 청년몰이 뜬다

'꿈뜨락 몰' 개장 3개월
29개 점포 창업...발길 줄이어
전통시장과 상생발전도 앞장
지역복합문화공간 도약 위해
공간 개성 살릴 정책지원 필요



여수 중앙시장 2층에 자리잡은 청년몰 '꿈뜨락 몰'. 이들 가게는 청년들에게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다. <여수시 제공>

지역 청년들의 요람인 여수 청년몰 '꿈뜨락 몰'이 도약중이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꿈을 향한 도전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효과를 통한 상생 모델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고객(시민·관광객)서비스를 위한 기본 편의 시설 확충과 소통 공간 마련 등의 지원 방안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원도심 내 (주)중앙시장 2층 빈 점포를 활용, 청년창업의 꿈의 공간인 청년몰 '꿈뜨락 몰'을 개장했다. 꿈뜨락 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일지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지상 4층 규모(면적 6340㎡)의 중앙시장은 지난 1975년 개장했다. 1990년대 여수국가산단 확장과 수산업이 호황기를 맞으며 160개 점포가 빼곡히 들어선 대규모 집구·의류 전문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2000년대 대형마트 등점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최근까지 빈 점포가 50개가 넘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여수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 받았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 규모로 국비 7억 5000만원, 지방비(시비) 6억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이 재원으로 투입됐다. 여수시는 중앙시장 2층 66개 점포 중 비어있는

52개 점포를 푸드코트·체험창업·청년벤처 등 청년창업점포와 다목적 공간, 지원공간으로 채웠다.

특목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의 점포는 모두 29곳(먹을거리 19. 판매서비스 10).

이곳에서 3대 1의 경쟁률을 넘어 선발된 29명의 청년들은 전문교육과 실습을 거쳐 '공터'에서 '꿈'을 이룬다는 의미인 '꿈뜨락 몰'에서 꿈을 향한 도전이 한창이다.

청년들의 요람인 꿈뜨락 몰 첫 달 방문객은 1만 6000여명을 기록했다. 두 달째인 8월말 기준 2만명을 넘어섰고 매출액은 약 2억원 정도, 전국 청년몰 성과 대비 여수시는 성공적이라 평가 받는다.

하지만 가장 3개월째 접어들어 현재 반짝 개업 특수가 아닌 청년몰의 진정한 성패는 지금부터라고 청년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전국 369개의 청년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130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청년몰의 성공 사례는 드물다. 광

주·전남 최초 청년몰인 '여수 꿈뜨락 몰' 청년 상인들이 상생을 위한 연대와 특색 있는 운영·마케팅을 고심하는 이유다.

청년 상인들은 고객만족과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꿈뜨락 몰 자체 홍보·기획팀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불거리·즐길 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포토 존과 플라마켓은 물론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강좌를 늘려가고 있다.

꿈뜨락 몰을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수시 지원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옛 전통시장의 한계상 좁은 입구와 오래된 화장실은 고객들의 지적 대상이다. 또 꿈뜨락 몰 먹을거리 점포들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꿈뜨락 몰의 강점은 많은 인원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에 있다.

하지만 현재 먹을거리 점포들은 청년상인 개개인의 공간 개성을 살리지 못한, 주

문 조리만 가능한 '푸드코트' 형식의 공간이다. 이 때문에 월세 걱정 없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공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용성 있는 정책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도 2017년 시작된 청년 몰 지원사업 만료기간이 올해 12월말 인만큼 내년도 청년 몰 후속 공모사업인 '2019 청년몰 확장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오주란 청년상인회장(여·36)은 "소통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고객들이 점포를 기억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교감을 위한 방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단순한 장사가 아닌 지역대표 복합문화공간이 최종 목표로, 청년연대를 통해 주제별 테마를 지닌 프리마켓 운영과 감성마케팅, 지역 환원 등 다양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부실공사 꼼짝마

여수시, 주민참여감독제 2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여수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하며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했던 주민참여감독제를 2000만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독인원도 기존 1명에서 2000만원 이상은 1명, 3000만원 이상은 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이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관리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관급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부실공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상 공사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

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다.

주민참여감독은 주민대표나 읍·면·동·장이 추천하며 감독공무원과 함께 공사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견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현재까지 32건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적용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는 주민참여감독제 적용 관급공사 상한액(1억원)을 폐지하기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으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당·불법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여수서 25~27일 개최

제30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된다.

여수시는 체육대회 준비를 담당할 T/F팀을 중심으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회가 전남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분주하다.

선수와 관람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전광판, 언론매체, SNS, 현수막 등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등 상징물도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확정했다.

대회 개최 전까지는 친절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업소 영업주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도 지난달 2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권오봉 여수시장이 조직위원장, 이찬기 여수시의회 부의장과 류재복 여수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은 25일부터 3일간 진남경기장 등에서 검도, 게이트볼, 궁도 등 22개 종목에 참가인원은 22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6000여 명이다.

시범종목으로 농구, 민속경기로 줄다리기도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30만 여수시민과 200만 전남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손수잡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5급 상당 감사관 공개모집...23~29일 접수

여수시는 5급 상당 감사관(개방형직위)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업무 관련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재를 채용해 소통·공감하는 청렴여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감사관 응시를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공무원 등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응시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시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와 제출서류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방형 감사관제는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1회 방문으로 'OK'...토지이동민원 원스톱서비스 호응

여수시가 토지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토지이동민원 원스톱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이동민원 원스톱서비스는 분할, 등 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민원을 1회 방문만으로 해결하는 시책이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지적측량 접수, 측량성과도 수령, 토지이동신청서 제출 등 민원처리를 위해 최소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해 10월 현재까지 98건, 215필지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했다.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 신청서까지 접수해 측량부터 공부정리, 등기축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반복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면서 민원인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원스톱서비스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시간·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 디오션리조트 신달순 신임 대표이사 취임

남해안 대표 복합휴양시설인 여수 디오션리조트 신임사장에 신달순(사진) 용평리조트 대표이사가 최근 취임했다. 전임 김종춘 대표이사는 효정글로벌 통일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용평리조트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복합 쇼핑몰 센트럴시티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탁월한 소통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신 대표는 지난 15년동안 부동산 개발·도매 유통, 숙박 서비스 업종에 몸 담았던 전문가로 지난 2017년 용평리조트 대표이사에 취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크게 기여했다. 저서 '부동산조세론'을 통해 조세관련 연구 성과도 선보였다.

신달순 대표이사는 "명품 해양관광 도시 여수 대표 지역기업인 디오션리

조트를 휴양전문 서비스 시설만이 아닌 고객 감동을 전하는 최고의 복합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며 "그를내 관광레저부문 기업 통합경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브랜드 파워 성장으로 국내 관광레저부문 선두주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건우 New Square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호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주)성원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